지역별 창업 동향

1) 5대 권역별

▌5대 권역별 창업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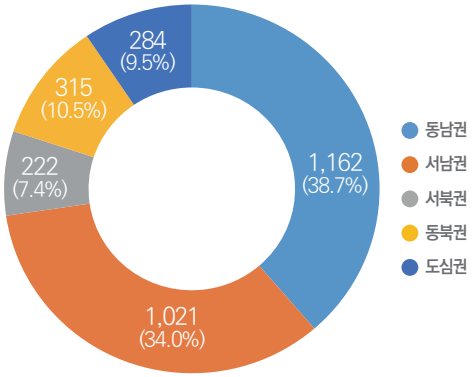
•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의 법인창업 비중은 30.7%로 17개 시도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했지만, 비중은 작년 동월 대비 1.3%p 감소

- 서울은 2019년 9월부터 전국에서 차지하는 법인창업 비중이 감소한 반면 경기는 2019년 내내 증가하면서 서울과 경기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

• 권역별 법인창업은 동남권이 1,162개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은 서남권이 1,021개, 동북권 315개, 도심권 284개, 서북권 222개 순으로 활성화

[그림 2] 2019년 11월 권역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단위: 창업 법인 수(비중 %)



▌권역별 증감률(전년 동월 대비)

• 권역별 법인창업 증감률은 서남권(17.02%), 동남권(3.4%)은 증가한 반면 도심권(-8.1%), 동북권(-6.5%), 서북권(-0.9%)은 감소

• 서울에서 법인창업 비중이 가장 높은 동남권은 (전년 동월 대비) 3.4% 증가

- 상반기 내내 감소세를 나타냈던 동남권은 도소매, 비즈니스서비스, IT융합, 숙박 및 음식점 등의 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활발한 법인창업이 이루어지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

- 반면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, 콘텐츠 등의 일부 산업은 2019년 내내 법인창업이 감소하는 등 동남권 내 산업별 성장세 격차 뚜렷

• 서남권은 11월 서울에서 법인 창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(전년 동월 대비) 17.0% 증가

- 서남권은 비즈니스서비스와 금융 산업을 주축으로 2월부터 지속적으로 법인창업이 증가

- 11월 서남권은 도심제조와 금융을 비롯한 전업종에서 활발한 법인창업이 일어났으며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과 IT융합 산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법인창업 감소

• 법인창업이 감소한 서북권, 동북권, 도심권은 각각 -0.9%, -6.5%, -8.1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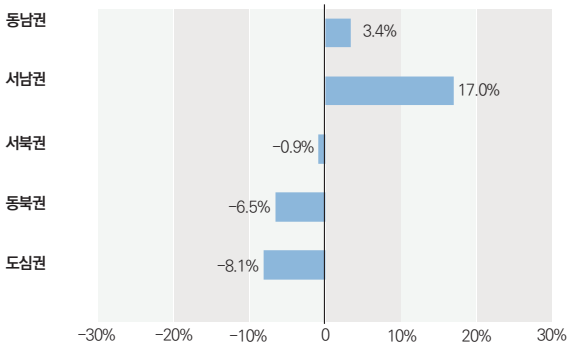
- 서북권은 창업 비중이 높은 IT융합, 비즈니스서비스 등의 업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제조, 숙박 및 음식점, 금융, 콘텐츠 등의 다수의 산업이 감소하면서 소폭 감소

- 서북권의 11월 가장 큰 특징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는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 산업에서 도심권과 함께 큰 폭의 증가 기록

- 동북권은 금융과 IT융합 산업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두 업종을 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법인창업 감소. 특히 관광·MICE, 숙박 및 음식점 등의 환대산업에서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

- 도심권은 산업 전반의 법인창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창업비중이 높은 금융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권역별 법인창업이 가장크게 감소

[표 2] 2019년 11월 권역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

2) 자치구

I 자치구별 창업현황

• 2019년 11월에도 서울의 자치구별 법인창업은 전업종에서 강남구가 가장 활발(단, 금융, 도심제조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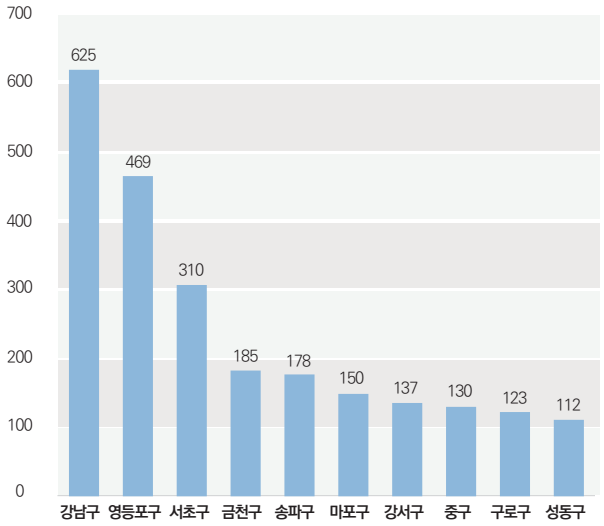
- 자치구별 법인창업은 강남구가 625개(20.8%)로 가장 많고, 그 외 영등포구 469개(15.6%), 서초구 310개(10.3%), 금천구 185개(6.2%), 송파구 178개(5.9%), 마포구 150개(5.0%), 강서구 137개(4.6%), 중구 130개(4.3%), 구로구 123개(4.1%), 성동구 112개(3.7%) 순으로 법인창업 상위 10개 지역

- 강남구는 전산업에서 활발한 법인창업으로 자치구별 법인창업 순위 1위 차지(단, 금융, 도심제도 2위)

- 영등포구는 3개 산업(IT융합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, 도심제조)을 제외한 산업에서 법인창업 상위 5위 이내. 자치구별 법인창업 순위에서 6월부터 연속 2위 차지. 11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법인창업 수는 1위 기록

- 자치구별 법인창업 순위 3위인 서초구는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, 도심제조을 제외한 산업에서 법인창업 상위 5위 이내를 기록했지만, 전년 동월 대비 법인창업은 감소

[표 3] 2019년 11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



I 자치구별 증감률

• 법인창업 수 상위 10개 자치구 중 전년 동월 대비 법인창업이 증가한 지역은 영등포구(32.5%), 강서구(29.2%), 성동구(23.1%), 금천구(22.5%), 강남구(9.1%), 송파구(6.6%), 마포구(0.7%) 순

• 반면, 구로구(-14.0%), 서초구(-7.7%), 중구(-1.5%)는 감소

• 전년 동월 대비 법인창업 사업체 수가 10개 이상 증가한 곳은 영등포구(115개), 강남구(52개), 금천구(34개), 강서구(31개), 성동구(21개), 은평구(13개), 송파구(11개) 순

[표 4] 2019년 11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